



열일곱번째 이야기

LUCE 모두 무사귀환!

[선교지 선교사역④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졸업식]

카톡방에 올라온 한 줄이 크게 공감이 된 2022년 루체 OR에서 누린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OR 표어는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고후13:11b)'입니다. 온 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지친듯해 보였지만, BEE와 루체가 밝은 땅은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2022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아웃리치팀은 정진희 단장님을 중심으로 팀장 이춘호, 중보기도팀장 정동기, 지원팀장 김기행, 물류팀장 박재현, 회계 김미영, 서기 허서윤, 공연 지휘 류지혜, 반주 육지영 전체 2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두 분은 결국 출국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함께 한 전우입니다!) 일정대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 휴스턴에서 대원들과 합류 후, 드디어 과테말라에 도착했습니다. 시차가 완전 반대라서 한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샤워하고, 방음이 안 된 방에서 찬양 연습을 하는 등 열기는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공연용 복다리 포장

첫 번째 일정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1시 인도자 대상의 졸업식이었습니다. 긴 비행 여정과 시차로 인해 목소리가 나지 않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짐으로 인해 공연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깊은 염려가

있었지만 첫 졸업식은 팀원 모두의 간절함, 진실한 마음과 후방의 BEE 중보팀과 각 테이블 식구 기도의 힘을 절실히 느끼는 감사와 안도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과테말라 졸업식 축하 공연

루체 단원 모두는 찬양 사도의 사명으로 굳게 서서 그 땅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평안을 구하며 선포하는 충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각자가 쉽지 않은 환경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 선 사명자로서 주님의 칭찬과 축복이 가득함을 느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루체가 준비한 공연은 찬양 7곡과 난타, Redeemer로 공연에 따라 의상, 소품, 악기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남관우 선교사님의 수고를 통해 말씀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신 졸업식 현장이었습니다.

국기 입장과 함께 루체 단원이 만드는 화려한 부채 터널로 음악에 맞추어 들어오는 졸업생들의 표정이 자못 흥분되고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띤 모습입니다.

졸업생 입장 후 첫 번째 경배 찬양 'How Great is our God'을 부를 때 워십팀의 칼 안무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다음 곡은 스페인어로 하는 'Eres Tu(당신입니다)'는 대상포진의 고통을 이겨낸 루체의 꾀꼬리 백영신 사모님의 솔로와 박재현 집사님의 현란한 라틴리듬 기타, 한금선 권사님의 윈드 차임벨 연주로 찬양의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이후 설교와 졸업장 수여식이 있습니다. 졸업식 때마다 느끼는데요, 그 어느 명문 대학의 졸업식 못지않게 정결하고 품위 있는 BEE의 졸업식이 진행됩니다. 앞장서서 식장에 입장하시는 조문상 선교사님, 박은형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권위와 품격을 느끼며 세계 각처의 자랑스러운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응원하게 됩니다.



과테말라 졸업식 현장

학위 수여가 끝나면 이어서 난타 '평안의 복소리'가 힘차게 연주되고, 곧바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루체팀이 부채를 들고 '예수님이 좋아' 찬양을 합니다. 중간 간주 부분에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선녀 같은 4인 무용수의 부채춤이 펼쳐지고, 이춘호 목사님의 솔로에 전체가 '예수님 최고야'를 외치며 대형 부채꽃을 선보입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 갈채와 환호를 보내줍니다. 이어지는 무언극 Redeemer는 전속 배우들의 실감 나는 연기로 인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에 눈물 흘리며 극에 더욱 심취하게 합니다.

이어서 분위기가 반전되며, 찬양 'I will follow him'을 반짝이 조끼 의상을 입고 류지혜 사모님의 천상의 목소리 솔로와 율동과 함께 언제나 주님만을 따르리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모두가 한껏 흥이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000 Reasons'를 김기행 권사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긴 음성의 솔로와 청중과 함께 한마음으로 BEE기와 만국기를 흔들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맘껏 찬양합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찬양해봐도 좋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Que todo lo que soy,
alabe al Señor Con todo mi corazon de tu grande amor Cantare Tu nombre ala-ba-re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이렇게 온 맘과 힘을 쏟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졸업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과테말라 졸업식은 한인교회에서 진행되었고 그동안의 아웃리치 가운데 처음으로 한인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조문상 선교사님의 '가정의 달' 설교에 이은 루체팀의 찬양 "은혜"와 "아리랑"은 고국을 떠나 먼 해외 생활에 지친 교인들을 위로하며, 우리 팀원들에게도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격하며 다시 마음에 새기는 찬양이었습니다.



과테말라 한인교회(담임목사 김상돈) 특송

이번 아웃리치에서 우리의 전문 카메라맨인 최창한 집사님이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멋진 영상으로 BEE를 소개하는 여러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루체팀의 적응을 위해 험한 계단의 5층 식당까지 먹거리를 만들어서 나르고 여러 가지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남관우 선교사님과 김혜자 사모님의 많은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년 만에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꿈 같은 10일의 일정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어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이렇게.....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글쓴이 이규인 권사]



온누리교회 부천 믿음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BEE 서남아 기도 테이블에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중등학교와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섬겼고 지금은 루체(소프라노)단원으로 아웃리치에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가족으로는 남편과 딸 하나와 아들 둘, 손녀 둘과 손자 셋이 있다.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의 예수

(필리프 드 샹페뉴, 292 x 399, 17세기경, 캔버스에 유채, 프랑스 낭트 미술관)

프랑스 출신 바로크 화가 필리프 드 샹페뉴(Philippe de Champaigne)의 그림으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하는 장면이며 누가복음 7장 후반부의 내용이다. 율법의 본래 목적과 의미를 잊고 행동으로만 열심히 바리새인을 향해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함의 의미를 알려 주시는 듯하다. 바리새인 시몬과 다르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다.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2. 7월 2일(토) 6:30, 2022년 "All & One"이 서빙고 한동홀에서 진행됩니다. 감사와 축복의 자리에 BEE 가족을 초대합니다!
3. 여름 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성품(월저)’, ‘고린도전서(화저)’, ‘교리론1(목저)’, ‘히브리서(토오)’와 대면으로 진행하는 ‘라구3 인도자 강습회(토오)’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02-822-9480